보도자료

KIHASA
한국보건사회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
https://kihasa.re.kr

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지속적 출산율 하락, 사회문화적 특수성 반영한 출산 제고 모형 필요

- 평균 약 5명이던 세계 평균 출산율(1960년대)은 2.25명 수준(2023년 현재)으로 하락…동아시아 선진 국가들 1명 이하,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인구 대체 수준(2.1명) 밑도는 출산율 보여
-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과 전통적 가족 규범의 공존, 일·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혼인 및 출산 지연과 출산율 하락 심화시켜
- 20대 후반·30대 초반까지 출산 연기해도 과거 코호트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않아…서구 '출산 연기 및 회복' 모형 적용에 한계
- 출산 관련 데이터 생산·수집 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적 특수성 반영한 정책 설계와 국가 간 경험의 공유와 협력에 나서야

※ 이 글은 저자의 의견이며,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. 활용한 자료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, 유엔자료를 활용하였음을 밝혀둠.

□ 한국보건사회연구원(원장 신영석)은 **『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』 제478호 〈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출산율 변동과 시사점〉을 발간**했다. 연구책임자는 **인구정책연구실 신윤정 연구위원**이다.

□ **신 연구위원**은 **"이 글은 유엔(UN)의 'World Population Prospect 2024' 자료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8개국과 동남아시아 11개국 출산율의 시대적 변화 및 국가별 차이를 살펴보고, 코호트별 출산 연기 및 회복 분석을 통해 향후 전망 및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."**고 말했다.

□ 신 연구위원은 **"유럽 국가들이 1960년대부터 출산력 변천을 경험한 반면, 일본, 한국,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1970년대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했다."**면서, **"이는 사회경제적 근대화와 가족제도 변화 사이의 불균형이 만들어 낸 독자적인 인구 현상으로 해석된다."**고 밝혔다.

□ 이어서 그는, **“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 하락은 서구의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. 이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출산 제고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.”**면서, **“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이 지역의 인구 변동은 피할 수 없는 만큼, 국가 간 경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.”**고 강조했다.

□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평균 합계출산율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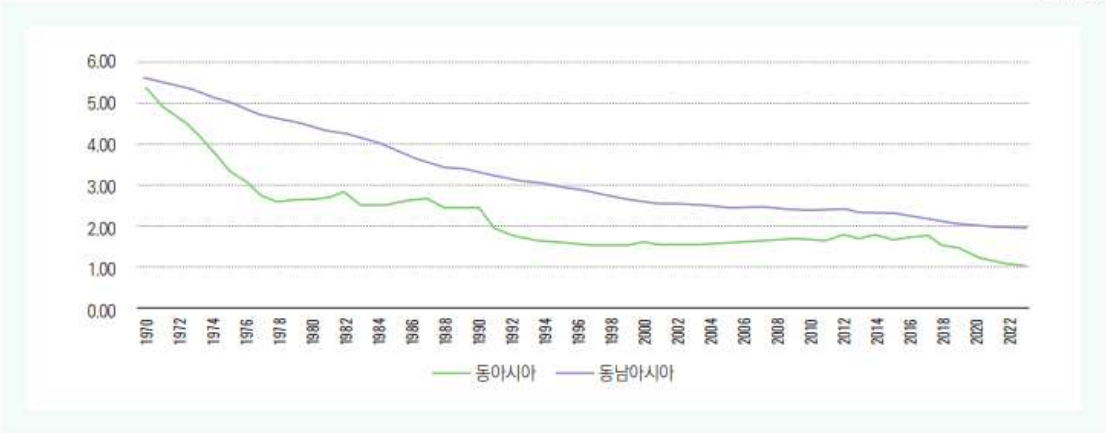
○ 두 지역은 1970년대에 평균 약 5명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이 더 급속하게 하락했다.

○ 동아시아 국가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에 2.1명 이하로 감소하고, 2020년 초저출산 수준(1.3명 이하)인 1.23명을 기록한 후 2023년에는 1명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.

○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완만한 속도로 감소해 2018년에 2.1명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2023년 현재 1.94명을 기록하고 있다.

[그림 1]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평균 합계출산율 변화(1970~2023)

(단위: 명)



출처: "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", United Nations,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, Population Division, 2024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.

□ 평균 출산 연령 상승과 국가별 차이

○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에서 평균 출산 연령이 2023년 현재 30세가 넘고 있음. 한국이 2000년 28.9세, 2010년 30.9세, 2020년 32.9세로 상승하여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으며, 홍콩(32.5세), 일본·대만(31.6세), 마카오(31.3세)가 뒤를 잇고 있다.

○ 동남아시아는 싱가포르(32.1세), 말레이시아(31.0세), 브루나이(30.6세)만 30

세를 넘겼으며 나머지 국가는 20대 후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.

[그림 3]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평균 출산 연령 변화(2000, 2005, 2010, 2015, 202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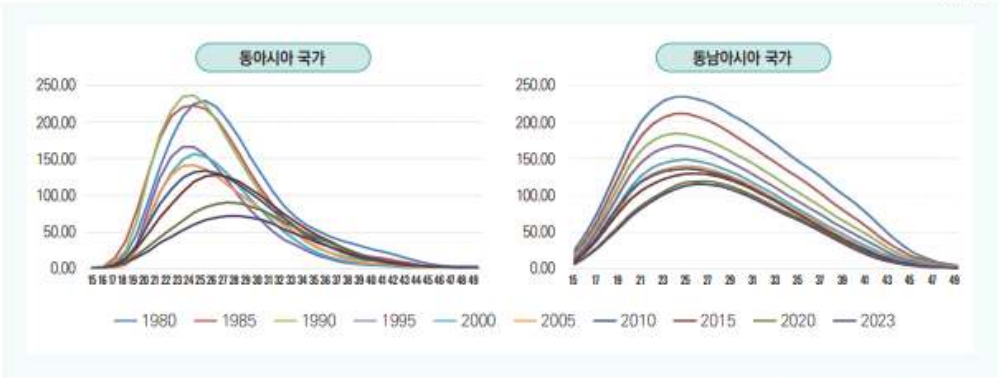
(단위: 세)



출처: "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", United Nations,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, Population Division, 2024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.

[그림 4]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령별 출산율 변화(1980~2022)

(단위: 세)



출처: "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", United Nations,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, Population Division, 2024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.

□ **변화의 주요 요인**

○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·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지속되고, 높은 자녀 양육·교육 비용과 주거비 부담 등이 혼인 및 출산 지연과 출산율 하락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.

○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영아사망률 감소와 가족계획사업의 확대, 피임 접근성 향상 등이 출산율 하락 촉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.

□ **'출산 연기 및 회복' 모형 적용의 한계**

○ 1954년 준거 코호트와 비교 코호트(1964, 1974, 1984, 1994년)의 누적 출산율 차이를 분석한 결과,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고 늦은 연령에서 출산을 실

현해 출산율이 회복된다는 모형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았다.

□ 지역별 코호트 변화 양상

○ 동아시아 국가들은 20대 후반 및 30대 초반까지 출산을 연기하고 이후 출산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지만, 과거 코호트가 보여 준 출산 수준으로까지는 회복되지 않았다. 특히 한국과 대만은 최근으로 올수록 코호트 간 출산율 격차가 더 커지고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

○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일정 시점에서 낮은 수준이 유지되는 모습이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.

□ 결론

○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 하락은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출산율 하락의 이론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지만, 이것만으로는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.

○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현재 경제적·사회적 상황은 출산율을 회복하는 데 우호적인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(Sobotka,2026). 특히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, 증폭된 불확실성, 기후 변화, 인공지능(AI) 등 디지털화,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확산은 출산율 하락을 가속화할 개연성이 크다.

○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은 서구의 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고려하면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.